

월요광장



박석무
우석대 석좌교수

조선왕조 5백 년, 참으로 많은 사회(士禍)가 일어나 억울하게 죽어 간 선비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대학자, 대정치가, 대문호들이 부당한 권력의 농단으로 무고와 모함에 걸려 생명을 잃었다. 이런 사건들은 바로 선비들이 당한 환란이어서 '사회'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회로는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을사사화(1545) 등이 있다.

38세의 당당한 대사헌(요즘 검찰총장)으로 대학자-대정치가이던 정암 조광조(1482-1519)는 적폐를 청산하고 요순시대와 같은 나라를 만들려다가 기독교 세력의 참담한 모함으로 유배지 전라도 능주에서 사약을 마시고 목숨을 버려야 했다. 기묘년의 일어서서 이를 기묘사화라 부른다. 이 사회에는 조광조의 동지이거나 제자들이던 최산두·유성춘·윤구(호남3걸) 등 팔팔 날던 전라도 선비들, 문과에 급제하여 한창 벼슬을 시작할 그들 또한 무참히 짓밟혀 전라도의 한으로 남았으며 저항심의 씨앗이 되었다.

1545년의 을사사화는 대운-소운의 권력 다툼으로 불의의 소운 세력들이 대운 세력을 제거하던 싸움인데, 금호 임형수(1504-1547)와 미암 유희춘 등 전라도 선비

금호(錦湖) 임형수의 억울한 죽음

들이 무수히 당했던 환란이었다. 하서 김인후 또한 그런 막된 세상에서 벼슬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품고 낙향하여 전라도의 대표적인 학자로 자리하였다.

불의의 권력 집단은 1547년 '양재역 벽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유희춘은 19년의 귀양살이를 해야 했고, 임형수는 끝내 사약을 받고 목숨을 버려야 하는 비운을 당하고 말았다. 사약을 받던 그때 임형수는 우리 나이로 겨우 34세. 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가. 퇴계 이황, 하서 김인후, 미암 유희춘, 소재 노수신 등 당대의 인물들이 "가장 뛰어난 시인이자 가장 뛰어난 직신(直臣)이요 가장 뛰어난 학자"라 했던 임형수는 그렇게 억울한 죽음으로 대성한 학자·정치가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인 계묘년(1543)에 당대의 학자와 문인들이 사가독서의 혜택을 받아 호당(湖堂)에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정책을 논했던 기록이 있다. 이른바 '계묘호당수계록'(癸卯湖堂修契錄)이라는 기록인데, 13명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퇴계 이황, 상택 정유길, 추파 송기수, 국간 윤현 등 뒷날 모두 고관대작에 오르고 학박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다. 거기에 들어간 호남 사람은 세 분(나세찬·임형수·김인후)인데 그중 두 분은 을사사화와 벽사건에 연루되어 죽음을 면하지 못했거나 하향하여 일생을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말았다. 이 하나의 사실에서도, 호남인들의 분노와 의리 정신이 어떻게 자리할 수 있었는지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에 걸려 정계에서 은퇴한 삶, 끝내 사약을 받고 죽어가야 했던 억울함, 목숨이야 건졌지만 유배살이로

억울함은 풀 수 없었던 생활. 이런 일을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 호남사람이었다. 글만 잘하고 시만 잘 짓는 선비가 아니라 활쏘기 말타기에도 능했던 호걸 선비 임형수는 비록 뒷날 사면 복권은 되었다. 하지만 서른 넷의 나이에 사약을 마실 때의 분노를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는가.

이와 관련 전해지는 일화가 있다. 사약을 마시던 순간 곁에 있었던 열 살 된 아들에게 "너는 절대로 글을 배우지 말아라"라고 훈계하더니, 다시 고쳐서 "글을 배우더라도 절대로 과거시험에 응하지는 말아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한창 벼슬을 시작할 무렵에 제주목사로 쫓겨 갔다가, 마침내 벽사사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그 일로 모함을 받아 사약이 내려졌으니,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들에게 글을 배우지 말라는 훈계를 했겠는가.

사회에는 전혀 관계없이 벼슬보다는 학문에 더 전력해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로 우뚝 솟은 퇴계는 친구 임형수의 죽을 소식을 듣더니, "너무 억울하고구려! 너무 억울하고구려! 언제쯤 그와 대면하여 학문을 논할 기회가 있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고 전해진다. 임형수는 평택 임씨로 나주 출신이다. 대대로 나주의 송현(松峴)에서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천재의 기질을 학문과 시문에 뛰어났다. 비록 낮은 벼슬인 흥문관 응교·전한 등 문한(文翰)의 지위에 있었으나 중종대왕이 승하하자 능지(廢誌)를 지으라는 어명을 받고 글을 지었으니 국왕의 최고 문장가 대접을 받았음을 알게 된다. 친구 사이로 가장 가까이 지냈던 퇴계는 세상에서 유명해졌는데, 일찍 죽어 대성하지 못한 임형수는 그래서 더욱 억울하기만 하다.

기고

‘성장 드라마’로 변한 영화 ‘조제’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대표·문학박사

‘조제’로 바뀐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작품이 추구하는 주제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해, 소설은 조제를 ‘의연’한 인물로 그렸지만, 영화는 장애인인 ‘성장 드라마’로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원제의 ‘호랑이’와 ‘물고기들’이 갖는 의미가 영화에서는 생략된다. ‘호랑이’가 의미하는 바는, 구미코가 동물원 호랑이를 보고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보고 싶었어’ 하는 대사에서 드러난다. 장애인으로 간혀 지내지만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상상하고 조형해 왔을 그녀. 당당함의 원천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독서광은 이미 조제만의 철학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런 구미코가 사강의 러브스토리 소설을 읽으며 상상하고 희망했을 ‘연인’의 존재 이유를 피력하는 대목이다.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사회적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의지하고, 보호받고 싶은 나이브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물고기들’의 연출로, 조제가 낳친 츠네오와 대화하는 장면이다. 물고기 조형물을 보고 선택한 숙소에서 조제는 자신이 살았던 해저에 대해 언급한다. “그곳은 빛도 소리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와. 정적만 있을 뿐이지” “외로웠겠다!” “별로 외롭지 않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천천히 천천히 시간이 흐를 뿐이지. 난 두 번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언젠가 내가 사라지고 나면 난 길 잃은 조개 껍질처럼 혼자 깊은 해저에서 데굴데굴 굴러다니겠지. 그것도… 그런대로 나쁘진 않아…”

어쩌면 삶이란, 조제가 통찰한 ‘바람도 비도 빛조차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 않을까. 마치 죽음과도 같은 ….

이즈음 조제는 츠네오의 마음이 변했음을 예감한다. “언젠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올 거야. 우린 또 다시 고독해지고, 모든 게 다 그래. 그냥 흘러간 1년이 있을 뿐이지”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에서는 성장이 아닌 의연함을 말하고 있다. 장애인 여성이라는 약자적 경험에서 느낀 깨달음이 탈관과 체념의 경지를 터득하게 한 것이다.

흔히 육망을 이루기 위해 난관을 극복하고 우뚝 서면, ‘성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육망’에는 두 가지의 철학적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플라톤에서 라캉에 이르기까지 견지되는, ‘육망은 결핍으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육망은 생산으로서의 육망이다’라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시각이다. 이 중 우리(한국의 정서)는 전자의 관점에 서서, 원하던 것(결핍)을 이루면 성장(=being)했다고들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본인들의 철학은 후자로, 육망은 결핍의 충족이 아니라, 오히려 ‘되기(becoming)이다. 사회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조차도 약자이다. 이를 이겨낸 상태를 성장이라 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예감하고 수용하는 의연한 태도의 생성에 더 가치를 둔다는 것. 이 영화의 주제가 ‘성장’이 아닌 ‘의연함’이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과연 인간은 ‘성장’하는 유기체일까?

기고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최혜란
동아기술공사 전문이사
도시계획기술사

문)의 과다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룹 부족, 넷째 성별 불균형 등이다. 이를 문제 삼아 신진 개혁적 전문가를 도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과거 도시계획 위원들의 재유족은 특정 인물들이 해당 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다는 접근 보다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 인력 풀이 넓지 않음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검토와 판단의 연속성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안배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경우 당사자의 자격과 경륜을 언급치 않더라도 지역사회 도시계획 전문가가 광주의 도시 개발 및 공공시설을 관리·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은 지적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토지 이용 부문의 도시계획 전문가 그룹의 과다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도시뿐만 아니라 건축·경관·교통 등 기능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토지 이용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당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역으로 각종 위원회가 그 기능에 부합하는 전문가 그룹 중심이 아닌 단체별·계층별·분야별 등 지역사회 다양성을 기반으로 구성된다면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은 무엇으

로 담보할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도시계획은 공공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며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준비이자 실천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참고 거점으로 구분해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과 투자로 발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무리한 사의 추구에 대한 공공적 제어를 동시에 감안하고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한 복합적 검토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결의 횡수 등은 적절한 활동의 지표가 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심의와 수권 소위에 의한 심화 검토 등을 통해 상정 안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사권에 대한 공공의 과다 행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도시 행정에 있어 시민 참여는 당연하고 또한 점차 심화·발전시켜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대한 발전적 문제 제기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건축·교통·환경 등 기능별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역할과 위상, 도시계획의 특성,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판단의 복합성 등에 대한 보다 현실적 이해가 함께했으면 한다.

社說

일부 교회 때문에 전체 개신교가 욕먹는다

광주 TCS 국제학교에 이어 또다시 광주 대형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온갖 불편함을 견디며 방역에 협조해 온 시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일부 종교시설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느냐는 분노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코로나 확진자 1백여 명을 비롯해서 에이스 TCS 국제학교 및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도 각각 4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들은 모두 지난 24일 열린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이 교회 부목사의 자녀는 광주 TCS 국제학교 합숙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개신교발 코로나19 불통은 전남으로도 튀기 시작했다. 순천에 살며 방학 기간 광주 TCS 국제학교에 다닌 학생 가족 4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고흥에서는 광주 빛내리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신천지 교회를 시작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선교단체인 BTJ열방센터,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그리고 일부 교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신교계는 '제2의 신천지'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며칠 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교회와 교회 관련 시설들이 잇달아 코로나19 감염 진원지가 된 것에 사과했다. 이들은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는 대중 정서 앞에 통렬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의료진·방역당국의 헌신을 무시하고, 공익을 외면하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종교의 자유'란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의 죄로부터 한국교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어물탕 정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속담이 있다. 일부 몰지각한 교회 때문에 전체 개신교가 욕을 먹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3개 기관 단체들의 지적처럼 "은 국민이 나와 이웃을 위해 자기희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시점에,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앞세워 저항하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과 집단적 자기중심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감염 차단 대책 확실히 한 후 등교 확대해야

교육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문제로 대두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돌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엇그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통해 유치원 생과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5단계까지 등교가 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지난해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경우'로 정했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은 1-1.5단계일 때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고, 2단계일 때는 전교생의 3분의 1까지만 제한된다. 이처럼 등교 확대를 결정할 배경에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하기가 어렵고 학습 공백이 쌓일 경우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일단 등교 확대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 자칫 집단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새 학기 개학 이전에 학교 내 감염 차단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방역 인력과 예산을 각급 학교에 충분히 지원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양림동은 광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지역이다. 1890년대 미국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였던 유진 벨과 오웬 등이 이곳에 오면서 선교가 시작됐다. 지금의 양림교회(기독교장로회) 앞에는 당시 예배를 드렸던 터가 남아 있다.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는 활짝 꽃을 피웠다. 오늘날 광주에 1500여 개 교회가 세워질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이다.

라틴어 미션(mission)에서 유래한 선교(敎宣)는 종교를 알린다는 뜻 외에도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복음을 알리는 틈틈이 신교육을 통해 의술과 농업기술 등 다방면의 선진 문물을 보급했다. 푸른 눈의 이방인들은 신행 일치(信行一致)를 견지하며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밀알의 삶'을 살았다.

최근 IM선교회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선교회 설립자인 마이클 조는 광주 외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해 왔다. 문제는 기숙형 학원이나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였다는

점이다. 특히 마이클 조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지켜 주셨다"고 간증할 만큼 무모한 신앙관을 갖고 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독일의 사제 마틴 루터(1483-1546)는 당시 흑사병이 돌자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함으로써 나와 이웃 간 감염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작금의 작잖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고수하면서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IM선교회를 비롯해 인터넷 BTJ열방센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집합금지 명령에도 지난해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광주 안디옥 교회 등은 '집단 감염 운상지'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일부 교회의 독선이 결국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조래한 것이다. 물질주의에 빠져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높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 세상을 향해 무릎을 저지른 탓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는 신앙의 공동체이자 목회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양림동 선교사 묘원은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skypark@

교회의 본질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